

일상생활에서 자녀들의 변화에 주의합시다

이지메

없앨 수 있는 것은
우리들 뿐입니다.



최근의 뉴스에서 「이지메」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정신을 바짝차리고, 장래가 있는 자녀들을 「이지메」로부터 지켜야만 합니다.

후지미시에서는 작년 12월 「후지미시 이지메방지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어린이들을 이제메로부터 지키려고, 시민들에 의한 「이지메방지 서포트제도」도 만들었습니다. ICEC도 누구보다 먼저 참가신청을 하고, 어린이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봐도, 이지메 건수는 늘어나는 경향입니다.

아동, 생도뿐만아니고 「이지메의 싹」은 아무데서나 싹이터서 아무데서나 씨를 만듭니다. 이지메의 싹은 매일매일의 감시, 지켜봄으로 싹을 잘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자녀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의 강한 「지켜봄」으로 이지메를 박멸해 가야 합니다.

<이지메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냉소, 놀리기, 욕설, 위협적인 말, 싫어하는 것 당함
- 친구사이 이간, 집단에 의한 무시. 금품등을 빼앗김
- 가볍게 부딪히거나, 장난처럼 때린다가, 발로 찬다
- 싫어하는 일이나 부끄러운 일, 위험한 일을 강요당하거나 함
-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있지도 않는 일이나 이상한 것을 써 넣는 행위



다음과 같은 항목이 마음에 걸리면, 작은 일이라도 바로 학교에 상담을 !!

<이지메 조기발견 체크리스트>

- 이불속에서 좀처럼 나올려고 하지않음
- 이유가 확실치않는 옷이 더럽혀져 있거나 단추가 떨어져 있다.
- 멍이나 상처가 있어도 그 이유를 얘기안함
- 아침일찍 또는 저녁에 외출하는 일이 많다
- 도구나 소지물에 낙서가 있다
- 돈 씹씹이가 헤프고, 무단으로 갖고 나간다
- 방에 있는 소지품이나 학용품이 없어졌다

- 사준 적이없는 물건을 갖고있다.
- 휴대폰이 울려도 받을려고 하지 않는다
- 소지품이나 자전거등이 망가져있다
- 프린트물이 찢겨져있다
-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
- 식욕이 없다
- 메일을 들키지않게 힐끗힐끗 본다
- 가족과 얘기하려하지 않는다

<이지메 해결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어린이들과 정면으로 부딪힙시다>

학교내외를 불문하고, 어린이들이 이지메를 당한다고 생각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린이들을 이제메로부터 보호합시다. 동시에 학교나 관계기관등에 연락해서 해결토록 노력합시다. 또 어린이들이 자신이 스스로 괴로움이나 슬픔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에 가까이 가서 안심할 수 있는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만들도록 노력합시다.

후지미노시 후루사토헬로워크에서 취직상담이 가능합니다

쓰루세역 니시구치의 선라이트홀내에 온 「후지미노시 후루사토헬로워크」에 이어서, 후지미노시 시약쇼 2층에도 「후지미노시 후루사토헬로워크」가 생겼습니다. 후지미노시에 살고 있는 분에게는 일자리 찾기가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후루사토헬로워크에서는 전문상담원이 있어 일자리 찾기를 서포트해 줍니다.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찾고 싶을 때는, 5대의 터치판넬컴퓨터에서 구인광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미후쿠오카역에서 도보 10분입니다.

●이용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장소/후지미노시 시약쇼 본청사 2층 ●문의/049-242-0197



아파트 철거시의 「원상회복」으로 트러블이 늘고있습니다.



방을 빌릴 때 내는 「시키킹」은 집세를 덜 내거나 퇴거시의 수선·청소비등이 발생했을 때,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는 돌려줍니다. 퇴거시에는 빌린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만, 보통 사용해서 변하는 것 (가구로 인한 카페트가 움푹 들어갔다던가, 햇빛에그을렸다던가, 열쇠교환, 하우스크리닝등) 은 빌려준 쪽이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퇴거시에 시키킹을 넘는 돈을 청구받았다는 등의 트러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퇴거시에 이해하기 어려운 청구가 있는 경우는, 국번없이 188 (소비핫라인)으로 전화해주세요. 가까운 소비생활센터 창구를 소개해 줍니다.

변경되었습니다

후지미시 시야쿠쇼내 「외국인 생활상담」

매주목요일 13:00~15:00



FICEC의 외국인 생활상담은 FICEC 개설 이래 20년 계속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중에서도 후지미시 시야쿠쇼내에 매주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해온 외국인 생활상담은 가치있는 외국인 상담코너입니다. 이제까지의 오전의 대응시간이 상담자에게는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 4월부터 상담일정을 변경했습니다.

◆◆◆ 매주목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개설 ◆◆◆

FICEC 사무서에서의 외국인 생활상담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10시부터 16시까지 개설됩니다.

고민내용은 가족의 일, 건강, 자녀교육, 직업, 트러블등 여러가지 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TEL. 049-269-6450